



사월의 눈(Snow of April) - 허각

1 가사보기

어느새 그 차가웠던

Eoneusae Geu Chagaweossdeon

긴 겨울에 하얀 눈도

Gin Gyeoule Hayan Nundo

스르륵 봄바람에 다 녹아내려요

Seureureug Bombarame Da Noganaeryeoyo

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나요

Dasi Ddo Nugungareul Saranghal Su Isseuryeonayo

눈부신 따스한 봄날엔

Nunbusin Ddaseuhan Bomnalen

그토록 욕해대고 할퀴어대던 두 사람이

Geutorog Yoghaedaego Halkwieodaedeon Du Sarami

나였는지 그녀였는지 조차 잊어버린 듯

Nayeossneunji Geunyeoyeossneunji Jocha ljeobeorin Deus

그 겨울 그 겨울이 그때 우리가 참 그리워

Geu Gyeoul Geu Gyeouli Geuddae Uriga Cham Geuriweo

미운데 미운데 그리워

Miunde Miunde Geuriweo

큰맘 먹고 살짝 열어본 내 창가에

Keunmam Meoggo Saljjag Yeoleobon Nae Changgae

눈부신 봄날 햇살 아래로

Nunbusin Bomnal Haessal Araero

차디찬 눈이 내려요

Chadichan Nuni Naeryeoyo

작은 내 방에 내 텅 빈 가슴에

Jageun Nae Bange Nae Teong Bin Gaseume

1 가사보기

그 아팠던 상처가 또다시 덧나려는 듯
Geu Apasdeon Sangcheoga Ddodasi Deosnaryeoneun Deus

이른 봄날에 눈이 내려요
Ireun Bomnale Nuni Naeryeoyo

주르륵 흘러내린 내 눈물마저도 차네요
Jureureug Heulreonaerin Nae Nunmulmajeodo Chaneyo

내게도 봄날이 올까요
Naegedo Bomnali Olggayo

누군갈 또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
Nugungal Ddodasi Saranghago Sipeoseo

미친 듯 거리를 걸어 봐도
Michin Deus Georireul Geoleo Bwado

차디찬 눈이 내려요
Chadichan Nuni Naeryeoyo

내 두눈가에 이 못난 가슴에
Nae Du Nungae I Mosnan Gaseume

그 아팠던 상처가 또다시 덧나려는 듯
Geu Apasdeon Sangcheoga Ddodasi Deosnaryeoneun Deus

이른 봄날에 눈이 내려요
Ireun Bomnale Nuni Naeryeoyo

하얗게 추억들이 내려요
Hayahge Chueogdeuli Naeryeoyo

주르륵 흘러내린 내 눈물마저 차가운데
Jureureug Heulreonaerin Nae Nunmulmajeo Chagaunde

내게도 봄날이 올까요
Naegedo Bomnali Olggayo

따스한 봄날이 올까요
Ddaseuhan Bomnali Olggayo

2 문법학습

-(으)려나

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가볍게 추측하거나, 그런 기대를 혼잣말로 할 때 사용

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나요'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혼잣말이고, 조금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.

"-(으)려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을 살펴볼까요?

- 1) 가: 오늘 저녁은 가족 모두 함께 먹는 게 어때?
나: 좋아. 그런데 누나가 오늘도 늦게 오려나.
- 2) 가: 유미에게 연락이 왔어?
나: 이따가 전화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전화를 하려나.

-(는/은/ㄴ) 듯

어떤 일이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

'-(는/은/ㄴ) 듯'은 비슷한 상황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.

'-(는/은/ㄴ) 듯'은 품사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데, 동사나 '있다/없다'에는 '-는 듯', 형용사에는 '-은 듯', 명사에는 '-인 듯'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된답니다.

'-(는/은/ㄴ) 듯'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을 살펴볼까요?

- 1) 가: 왜 이렇게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어요?
나: 날씨가 무척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요.
- 2) 가: 영수 씨가 장학금을 받았대요.
나: 아, 그래서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는군요.
- 3) 가: 저 사람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니 부자인 듯해요.
나: 지난달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대요.